사진제공=강원랜드강원랜드가 'K-HIT(하이원통합관광)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고객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모바일 카지노 발권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카지노 입장고객은 발권창구에서 대기하지 않고 20일 오전9시부터 '하이원 리조트 모바일 앱'을 통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지노 입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고객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전 자동응답시스템(ARS) 입장예약결과 빠른 입장순번을 배정받은 고객들은 줄서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모바일 발권은 오전 6시10분부터 24시까지 운영되며, 앱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 후 입장료 9000원을 결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발권 시 발생하는 수수료 88원은 강원랜드에서 납부 하지만 취소 시 발생하는 88원은 고객이 부담해야한다.이와 함께 오는 9월 안면인식과 지정맥을 활용한 생체정보 입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스마트입장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발권과 입장, 재입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고객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원랜드 측은 설명했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고객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